

날짜 2024-12-29(D1) 본문 사53:2-6
번호 2577 설교 변일국 목사
구분 송년 주일예배 찬송 찬151, '만왕의 왕 내 주께서'

시작 주님 가르치신 기도
찬송 찬151, '만왕의 왕 내 주께서'
기도 권영희 사모
본문 사53:2-6
설교 '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'
찬송 찬551, '오늘까지 복과 은혜'
봉헌 변준석 형제
광고

- ① 변환(pdf → hwp) 및 번역, 블로그 작업
창17:20, AC.2086-2090, '이스마엘에 대하여는'

헌금기도

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
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

축도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12월 29일,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을 맞아 특별히 어지러운 정국 가운데, 역시 주님도 이천 년 전, 이런 비슷한 국내, 국제 정세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고,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오신 주님한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, 주님의 어떤 점을 닮아야 할까 하며 고민할 때 주신 본문인 이사야 53장 2절로 6절, ‘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오늘 설교에서 특별히

...또한 주님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던 때 오셨습니다. 공의의 하나님, 정의의 주께서 이런 나라 안팎 사정에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소위 독립군들에게 힘을 보태시기는 커녕, 오히려 주님은 정치와 군사에는 일체 함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, 곧 더 깊은 상대, 저들 식민 지배계급의 사람들 안에서, 인류의 안에서 숨어 활동하며, 무대 뒤에서 조종하여 인류를 자기들 뜻대로 부리는 지옥을 상대하시기 위해 인류를 깨우시고, 각 사람을 그 무너진 기초에서부터 다시 세우시는 일에 오직 자기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주님처럼, 우리 중에 누구는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광화문으로, 또 누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, 변화된 삶, 곧 일터와 직장에서 자기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구호를 외쳐도 절대 무슨 악한 기운, 그러니까 지옥에서 오는 기운을 일체 배제하며, 비록 마이크를 잡아도 이런 나라 사랑의 마음과 힘을 주시는 주님께 그 공과 고마움,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, 자기는 뒤로 물러나며 자기를 부인하는, 천사들의 겸손으로 마이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...

에 저는 깊이 동의하며, 제가 혼란스러워하던 부분이 명료해졌습니다. 주님, 더욱 제게 빛을 비추사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욱 명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!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